

# 부뜸이에 의한 전립선암 치료 1례 보고

김경철\* · 양한조<sup>1</sup>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1: (주) 한지 기업연구소

## Clinical Report of One Chronic Several Patient on the Cancer of the Prostate Gland by Using BUDDEUMI -equipment with using Combination of Moxibustion and Cupping Literatures-

Gyeong Cheol Kim\*, Han Joe Yang<sup>1</sup>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epartment of Medicine, Han Ji

"BUDDEUMI is a new remedy of the synchronous combination of cupping boil and moxibustion for the exclusion of human body's waste product. It wishes the reach for improving the effect of cupping boil and moxibustion by the synchronous combination. As the negative pressure of cupping and the hot cure of moxa are made up of BUDDEUMI structural character. In order to determine the depth-hot effect of BUDDEUMI, clinical study was performed in the cancer of the prostate gland for several years. The targets of study was one person with the cancer of the prostate gland for several years. The BUDDEUMI was operated 3-4 times/ day, during 12 months on the Gowan-Won, Jang-Wan, Jeon Jung and the abdominal region & Jang-Gang, Meong-Moon, Dae-Chue and the back region. Therefore we compared PSA(prostate singular antigen: June, 2006/ June, 2007) before and after BUDDEUMI therapy. PSA significantly decreased in a comparison of before-treatment (30.76) and after 12 months (0.76). And the times of enuresi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 comparison of before-treatment (5-10 times) and after 12 months(1-2 times). The effects of BUDDEUMI are observed on the treatment of the cancer of the prostate gland. As "BUDDEUMI and BUDDEUMI's treatment" is expected to relieve pain, and for the healthy article of Senior-Friendly.

Key words : the cancer of the prostate gland, BUDDEUMI, Gowan-Won(關元)

### 서 론

한의학의 치료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쑥뜸요법이다. 쑥뜸요법은 쑥을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서 연소시켜 온열적 자극을 피하에 침투시킴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온열 자극요법이다. 이것은 쑥이 연소 될 때 발생하는 열의 온열자극과 연소 시 분비되는 쑥액의 화학적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쑥뜸요법의 경우 많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쑥이 연소하면서 생기는 연기와 냄새로 인한 불쾌감으로 가정이나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화상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기간 쑥뜸치료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수단의 하나로 부항이 있다. 부항의 경우

는 체표에 일정한 음압을 걸어주어 체내 혈관에 쌓여있는 노후된 혈장들을 혈관 밖으로 배출하게 만들어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근육통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그러나 부항의 경우 혈장을 혈관 밖으로 배출을 하긴 하지만 몸 밖으로 까지는 배출시키지 못하였다.

저자는 그동안 이러한 쑥뜸과 부항을 동시에 시술함으로써 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상호 보완시킨 '부뜸이'를 활용한 연구 보고를 하였으며<sup>1-4)</sup>, 이에 힘입어 전립선암 치료 1례의 임상보고를 하는 바이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부뜸 연구소를 방문한 전립선 암 선고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 2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1-850-8649

· 접수 : 2007/09/14 · 채택 : 2007/10/30

2. 치료방법

부뜸이 기구를 사용하여 1일 3~5회 부뜸요법을 실시하였다. 흉복부에서는 주로 단전, 천추 중완과 전중혈 부위에 하였으며, 배부에서는 장강, 대추혈을 중심으로 족태양방광경 부위에 시술하였다. 1회 시간은 40분으로 한번 부착 후 지속적으로 부뜸요법을 실행하였다.

3. 증상의 호전도와 판단근거

환자 자신 심신의 편안함과 동시에 야뇨 횟수(5-10회에서 1-2 회로)가 줄어들었으며, 2005년 5월 전립선암 진단시에 PSA 수치가 30.76이었으며, 2007. 6.13 현재 치료중에는 PSA수치가 0.76이다.

증 례

1. 환자 : 허○○, 남자, 만63세

2. 주소증

하복부와 엉덩이 통증, 소변불편과 지연, 잔뇨감, 야뇨빈삭, 소화불량

3. 발병일 : 2004년 5월

4. 과거력

2002년 가을부터 소변이 시원해질 못하여, 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곧 호전되었다. 몇 개월 후 다시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약간의 통증도 수반하여, 다시 치료를 받았으나 전과 같이 호전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도 배뇨가 좀 불편하긴 하였지만,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방심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약도 복용하였으나 불편함은 점점 더 가중되었다. 그 후 동네의원의 의사의 조언을 받아 들이고 불안한 심정으로 대학병원에 급히 예약하여 검사를 받아 초음파검사, 피검사, 뼈검사, MRI를 거쳐 조직검사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검사를 끝내고 드디어 2004년 5월 초 결과를 보게 되었다. 결과는 전립선암이었다. 그것도 뼈에 좀 진행된 상태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

5. 현병력

처음 검사 결과는 PSA(전립선 특이 항원검사)수치가 최고 30.76(정상0~4)에서 오르내렸고, 밤에 배뇨횟수는 5- 10회이다.

6. 부뜸치료와 경과

2006년 6월말경부터 부뜸이 기구를 사용하여 1일 3~5회 실시하였다. 주로 단전, 천추, 중완과 장강혈에 부뜸이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앞가슴과 등 쪽도 함께 하였다. 2006년 12월 약 500회 정도 시행하였을 때부터 심신의 편안함과 동시에 야뇨횟수가 3~4회로 줄어들었다.

2007년 3월 약 800회 정도 시행했을 무렵부터 야뇨 횟수가 2~3회로 줄어들었으며, PSA수치도 떨어지고 전립선의 불편함이 호전됨을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5월말 약 1,100회 시행하였으며 야뇨 횟수도 1~2회로 줄었다. 2007년 6월 13일 검사 결과 PSA수치가 0.76으로 떨어졌다.

고찰 및 결론

부뜸요법은 뜸과 부항을 겸용하여 뜸의 온열작용과 부항의 정혈해독작용을 동시에 시술함으로써, 신체내에 축적된 만성적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이다. 즉, 뜸의 기능을 부항과 더불어 한층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시술로서, 불을 붙인 쪽을 피부에 직접 태우는 쪽뜸이나 컵 하나하나의 공기를 빼주어 음압을 걸어 주어야 하는 기존의 부항을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피부호흡을 강화시켜 혈액을 정화시키는 장점만을 크게 부각시켜 개발한 시술법이다.

온열항암요법에 의하면 정상세포는 섭씨 50℃가 넘어야 응고(괴사)되는 반면, 암세포는 42-43℃에서 괴사된다고 한다. 암세포가 뜨거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술로 배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가열된 물을 복강 내에 계속 순환시켜 암세포의 괴멸을 꾀했던 난소암 치료법이 탁월한 결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암세포에 접촉시킨다는 것인데 원적외선 찜질방, 원적외선 매트 등 원적외선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항과 쪽뜸의 원리를 하나로 합친 부뜸요법 역시 열을 이용한 질병 치료이다.

부항의 음압을 이용해서 쪽뜸 할 자리의 땀구멍을 최대한 열리게 한다. 가장자리 쪽을 누르면 터져 나오는 여드름과 달리 가장자리 부항부분이 피부 바깥쪽으로 흡입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쪽뜸 자리는 상대적으로 피부 안쪽으로 공기를 흡입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해 쪽이 타면서 내는 열기와 효능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수포현상을 부뜸요법의 가장 큰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 수포현상은 혈관 내에 있던 변이된 체액이 피부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말하며, 질병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서 그 체액의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오렌지 색 물에서부터 짙은 갈색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분의 체액이 쏟아져 나오다가 어느 정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처럼 피부에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져 나간다. 만병의 원인인 노폐물이 제거되면 우리 몸은 하나 둘 원래의 기능을 찾아가게 되며, 세포기능의 정상화, 적혈구의 정상화, 면역기능 상승작용, 혈액 정화작용, 혈행촉진, 비만해소, 체질개선, 호르몬 분비 변화 효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임상연구에서는 남자, 만63세로 하복부와 엉덩이 통증, 소변불편과 지연, 잔뇨감, 야뇨빈삭, 소화불량 증상을 나타내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 검사 결과는 PSA(전립선 특이 항원검사)수치가 30.76(정상0~4)에서 오르내렸고, 밤에 배뇨횟수는 5- 10회이었다.

부뜸이 기구를 사용하여 1일 3~5회 부뜸요법을 실시하였다. 흉복부에서는 주로 단전, 천추 중완과 전중혈 부위에 하였으며, 배부에서는 장강, 대추혈을 중심으로 족태양방광경 부위에 시술하였다. 1회 시간은 40분으로 한번 부착후 지속적으로 부뜸요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환자 자신 심신의 편안함과 동시에 야뇨 횟수(5-10

회에서 1-2회로)가 줄어들었으며, 2005년 5월 전립선암 진단시에 PSA 수치가 30.76이었으며, 2007. 6.13 현재 치료중에는 PSA수치가 0.76이다.

이상의 임상 사례로 보아 부뜸이가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부뜸이의 심부온열과 노폐물 제거 효과 연구를 위한 보다 더 많은 임상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김경철. 뜸과 부항의 겸용치료(부뜸이)가 만성대장증후군 환자의 생혈액 형태 및 자각증상 호전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

생리병리학회지 19(2):544-548, 2005.  
2. 류경호 외 8인. 부뜸이(부항과 쑥뜸의 동시겸용치료기)의 구조적 특징과 부뜸요법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2):522-526, 2006.  
3. Gyeong-Cheol Kim, Han-Jeo Yang, Clinical Report of four patients on Atopic Dermatitis by using BUDDEUMI.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iental medicine, p 128, 2005.  
4. Kim Yi Soon, Gwon Ja Youn, Kim Gyeong Cheol. Effect of the BUDDEUMI (moxa and cupping a boli) therapy on the relief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dysmenorrhea in female college students. world congress on medical physics and biomedical engineering, p 3472, 2006.